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2. 12. 4

「마가복음 서론여섯 번째 말씀」

##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God's Words to those who want to become great

마가복음 10장 35-45절

- 
-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품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1.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을 세우는 기준으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하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생각해봅시다.

\* [참조] 여기서 당시 ‘감독’이라는 말은 오늘날 감리교회에서 목사들을 대표하는 연회의 ‘감독’의 의미와 달리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2. 교회 지도자의 타락의 문제는 반드시 그 핵심이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고 설교 중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의 다른 리더들(교회임원, 소그룹 리더, 선교회 임원 등)도 어떠할지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3. 미가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기준으로 목회할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는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잃을 때,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4. 오늘 본문은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고 청탁하였습니다.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요,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5.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3, 44)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 할 수 있다면, 혹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이유 때문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6. 우리 교회 주방에 누가 있는지, 우리 교회 청소는 누가 하는지, 교회를 위해 섬김으로 애써주시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봅시다. 그 분들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봅시다.

7. 오늘 서두에는 하나님은 ‘조건없이, 이유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후반부에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